

울릉도와 우산국 이야기

동해 한가운데,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곳에 우산국이라는 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우산국은 《삼국사기》와 《삼국지》의 <위지동이전>에도 등장하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지증왕 13년 6월에 우산국이 귀복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증왕은 신라의 제22대 왕으로 나라 이름을 신라로 짓고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때 지증왕은 이사부 장군을 하슬라주(지금의 강릉)의 군주로 임명하고 우산국을 포함하여 동해안 지역의 섬을 모두 점령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산국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한 데다가 우산국 사람들은 용감하고 힘이 세서 점령하기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부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산국 사람들에게 나무로 된 사자를 보여주며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섬에 풀어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사부는 이 방법으로 우산국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산국은 그 뒤로 신라에게 공물을 보내며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이후 신라 멸망하고 나서는 고려에 공물을 보내며 계속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